

# 신앙고백

일 시	둘째날, 오후 소요시간 (각 Post 15~20분)	장 소	실내외
대 상	초, 중 고등부	제 작	청소년사목국
목 적	각 Post 통하여 미사전례 중 신앙고백의 각 구절의 의미를 기억한다.		
준 비 물	포스트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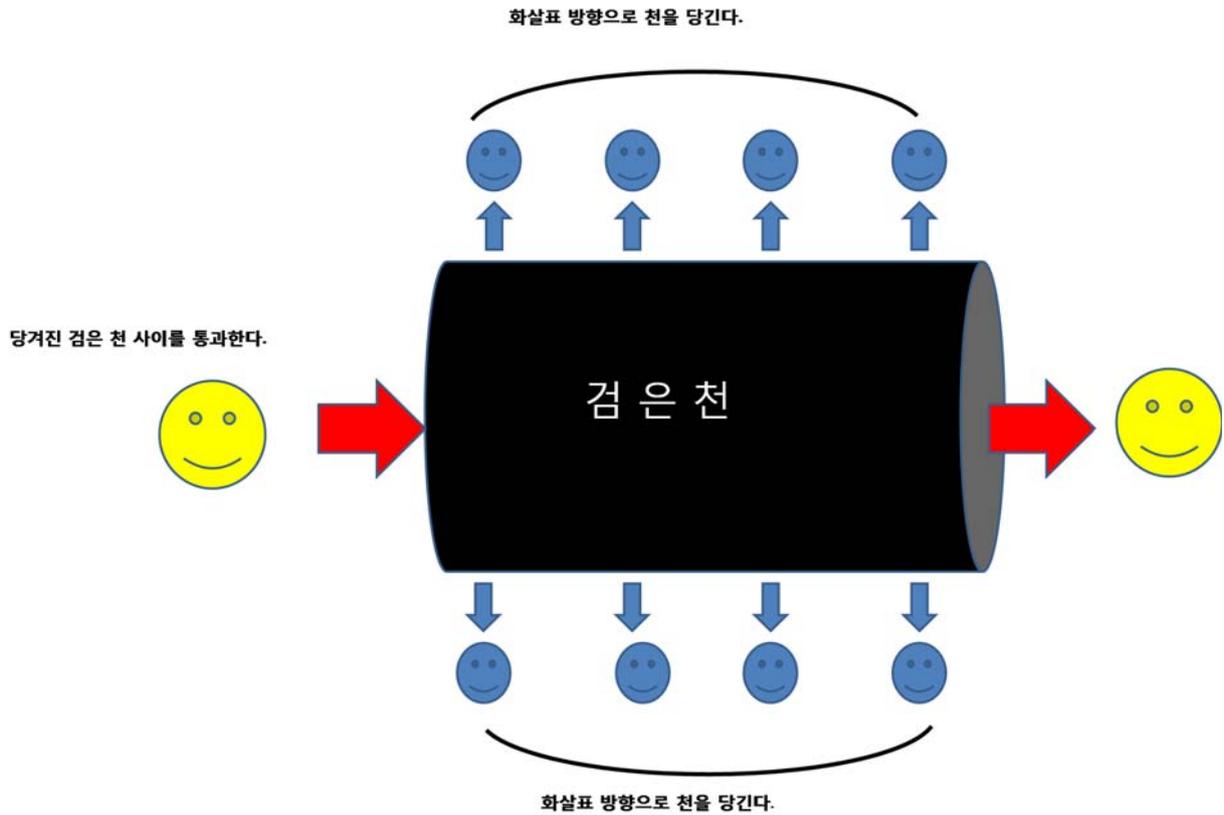
## I. 프로그램 개요

- 1)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신앙고백 기도문을 Post 게임화한 놀이 프로그램이다.
- 2) 신앙고백 기도문은 니케아 신경으로 한다.
- 3) 프로그램에 앞서 니케아 신경에 관한 설명을 한다.

## II. Post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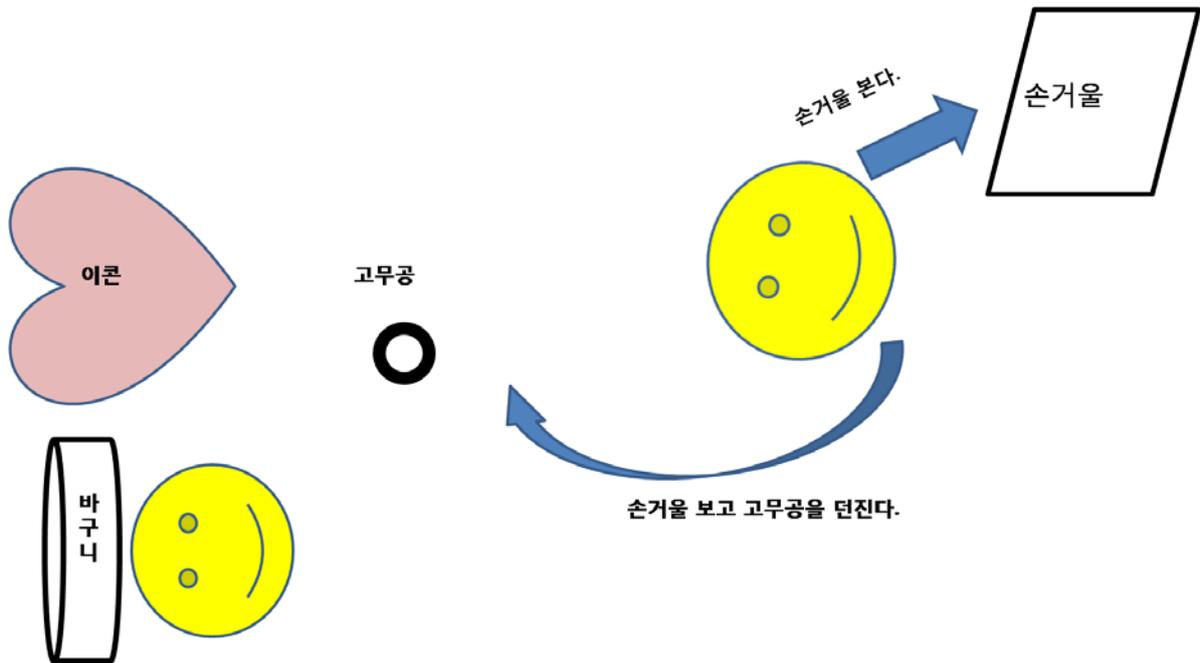
### 1. 새 세상으로 Go!!

- 1) 신경 중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응용 프로그램.
- 2) 준비물 : 7m 길이의 원형모양 검은 천 2개
- 3) 진행방법 :
  - ① 1~2개의 조가 함께 하는 활동이다.
  - ② 검정색 천을 길게 놓고, 반으로 접은 후 조원들이 서로 마주 앉아 천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 ③ 조원 중 1명씩 상대방 조원들이 잡고 있는 천 사이로 들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 ④ 바닥은 울퉁불퉁한 불편한 장소로 선택하여, 천 사이 통과를 어렵게 한다.
  - ⑤ 검정색 천은 어머니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 2. Right?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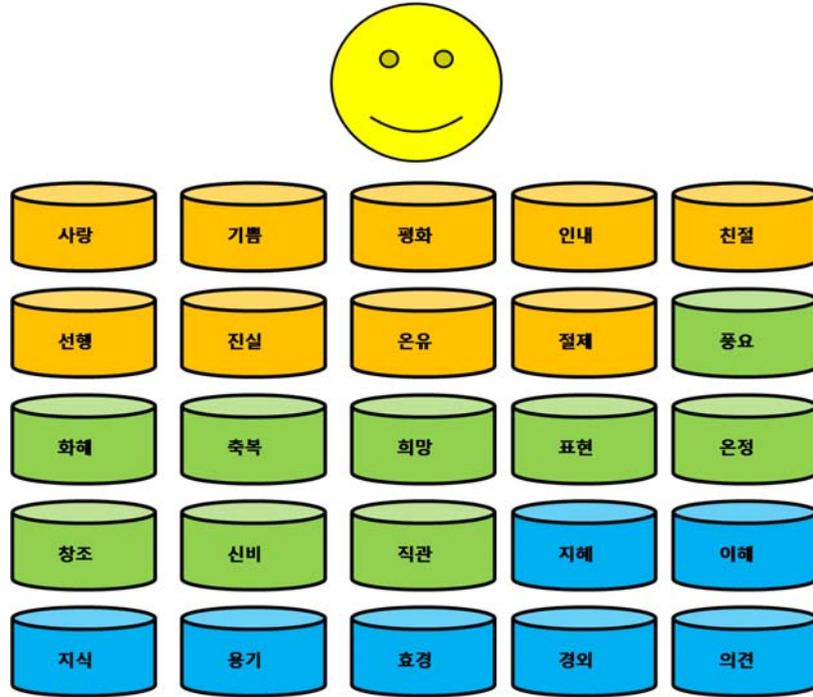
- 1) 신경 중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응용 프로그램.
- 2) 준비물 : 의자 2개, 손거울(20cm\*30cm 이상), 고무공, 플라스틱 바구니, 이콘(성부 하느님을 형상화)
- 3) 진행방법 :
  - ① 조원 중 1명이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이콘 옆 오른쪽 자리에 앉는다.
  - ② 학생 1명은 5m 정도 떨어진 곳에 손거울을 들고 앉는다.
  - ③ 들고 있는 손거울을 보고 조장이 들고 있는 바구니 안으로 공을 던진다.
  - ④ 바구니 안으로 공을 많이 넣은 조가 승리한다.
  - ⑤ 고무공을 대신 조원들 신발등 다양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성령이여~!

- 1) 신경 중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응용 프로그램.
- 2) 준비물 :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을 나누어 적은 쪽지, 성령칠은과 열매가 적힌 바구니
- 3) 진행방법 :
  - ① 성령칠은이 적힌 바구니에는 니케아 신경 기도문이 적힌 쪽지를 넣고 성령의 열매가 적힌 바구니에는 사도신경 기도문이 적힌 쪽지를 넣는다.
  - ② 각 바구니를 섞어 놓는다.
  - ③ 각 조별로 총 7번의 바구니 선택 기회를 준다.
  - ④ 성령칠은 바구니에만 니케아 신경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기도문을 모아 니케아 신경을 완성한다.
  - ⑥ 프로그램에 앞서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 ⑦ 성령칠은과 성령의 열매 외에 다른 바구니도 준비하여 주님의 기도 또는 성모 송과 같은 기도문을 넣어 두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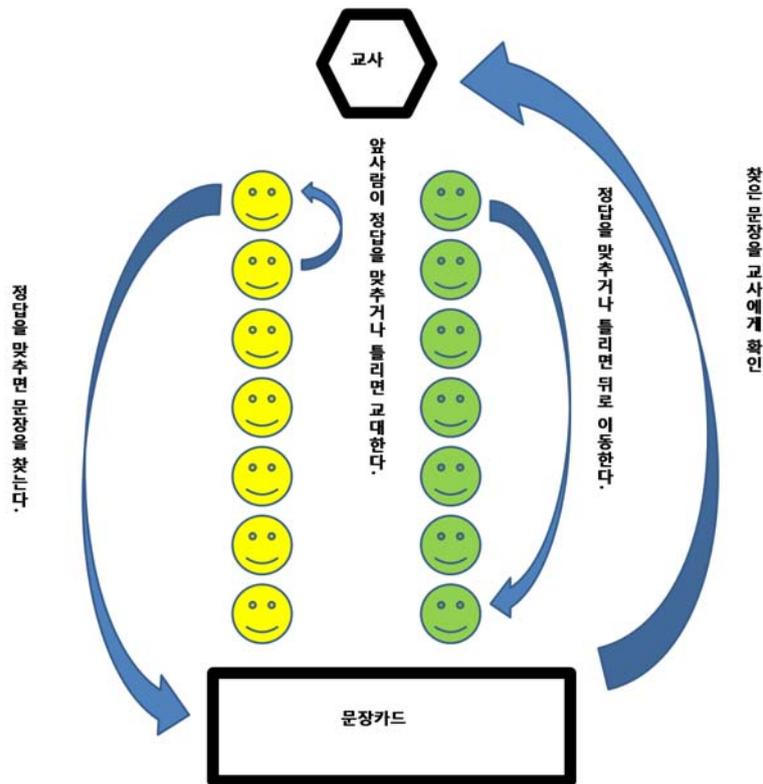
니케아 신경 기도문이 들어있는  
성령칠은 바구니를  
찾아 기도문을 완성하라.



\* 파란색: 성령칠은 / 노란색: 성령열매 / 초록색: 기 타

#### 4. 12사도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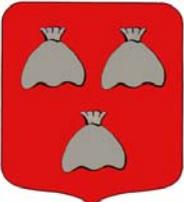
- 1) 신경 중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응용 프로그램.
- 2) 준비물 : 12사도 문장과 상징이 그려진 카드, 성인 또는 주교님 문장 카드, 방석
- 3) 진행방법 :
  - ① 방석퀴즈의 형식을 따른다.
  - ② 12사도 문장과 다른 문장과 성인 또는 주교님 문장 카드를 섞어 놓는다.
  - ③ 열두 사도 문제를 맞추면, 해당 사도의 문장카드를 찾아야만 점수로 인정한다.
  - ④ 문장카드는 학생들 뒤쪽에 배치하고, 정답을 맞추면 카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제한시간 내에 문장을 찾아 교사에게 제출한다.
  - ⑤ 제한시간을 넘기거나 문장이 틀린 경우 상대조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 ⑥ 정답과 문장을 맞추거나, 정답을 틀린 조원은 다른 조원과 교대하여 계속 문제를 풀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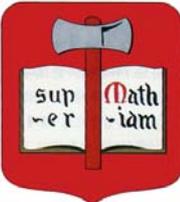


4) 사도 문장 설명

	<p>갈릴레아 출신의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 라는 이름을 받고 사도단의 으뜸으로 전체교회를 돌볼 책임을 받았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수난 직전 세 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된 아주 인간적인 인물이다. 충동적이며 분별력이 없으며, 성급하며, 열광적이며, 낙천적인 인물 사도 베드로는 성령강림 후 주로 팔레스티나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소아시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베드로는 한 장의 수건을 항상 가슴에 넣고 다니며 넘치는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p>
<p>베드로</p>	
	<p>요한복음서 저자이기도 한 요한은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승에 따르면 66년 소아시아로 옮겨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요한 묵시록’을 썼고 에페소로 돌아와 복음서와 3통의 편지를 썼으며 기원 100년께 90세로 생애를 마쳤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애제자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으며 박해 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화상 하나 입지 않고 가마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문장에는 푸른색 바탕에 그려진 황금색 술잔과 이를 둘러싼 은색 뱀이 그려져 있다. 어느 사도가 설교하며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소아시아 다이아나 신전에서 그를 해치려 한 거짓 신의 대사제관 아리스토티무스의 독을 마시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전승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p>
<p>요한</p>	

	<p>사도 요한의 친형인 사도 야고보는 성령 강림 후 갈릴레아에서 선교했고 기원 44년 헤로데 아그리파 1세때 순교하여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이다.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 선교가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전승이 기원한다. 그는 '천둥의 아들'이라 불렸는데 이는 불같이 급한 성격과 사방에 떨친 설교의 위력 때문이다. 문장은 푸른색 바탕에 순례 여행을 상징하는 3개의 황금색 가리비 조개로 구성돼 있다. 부르심을 받기 전 어부인 아버지 제베대오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나 가업인 어업에 종사 하였던 것과 그의 순례여행을 암시하는 듯 하다. 야고보는 성화에서 보통 순례자의 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진다. 스페인 미술에서는 이슬람교도로부터 해방자로서 말을 타고 깃발을 든 기사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스페인 성당에서는 순례자의 보호성인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 순례 지팡이, 가리비, 표주박을 든 모습 등이 많다.</p>
<p>야고보(大)</p>	
	<p>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는 형과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며 신중한 성격의 인물로, 성경에 형 시몬 베드로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입교시킨 기록을 남겼지만 안드레아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어부 안드레아는 작은 어부로 불린다. 이를테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해 나눔의 영광을 받았던 사도였던 셈이다. 어부와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다. 안드레아 사도의 문장은 푸른색 바탕에 X자형 십자가가 그려진 아주 단순한 형상이다. 안드레아 성인은 신약시대 로마제국의 속주로 마케도니아 이남 지역인 아카이아에서 기둥에 묶어 창으로 찢려 죽이는 중형벌인 책형에 처해졌는데 이 문장은 안드레아 성인이 X형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승을 살린 듯하다. 이런 모양의 십자가를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라고 부른다. 안드레아 사도는 외투를 입은 사도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긴 수염 맨발로 묘사된다.</p>
<p>안드레아</p>	
	<p>사도 필립보는 사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 공관 복음에 아무 기록이 없다. 그러나 요한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베싸이다 출신인 그는 사도 안드레아와 특히 친하게 지냈으며 그와 함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열두 사도의 이름이 거명될 때에는 항상 다섯 번째에 기록되며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유다인과 교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목업자와 모자 제조업자의 수호성인으로 소아시아와 프리기아 지방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한 개의 황금색 십자가와 빵을 상징하는 두 개의 은색 동그라미로 구성돼 있다. 두 덩어리의 빵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두 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필립보를 불러 의견을 물었던 대목과 관련이 있다. 사도 필립보의 상징은 라틴식 십자가 혹은 T자형 십자가가 달린 지팡이이다.</p>
<p>필립보</p>	

	<p>쌍둥이 형제의 한 사람인 토마스의 별명을 의심 많은 사람, 증거를 볼 때까지 믿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 쌍둥이로 불린다. 의심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따른 인물이다. 지금의 이란 동북부와 아프카니스탄 북쪽, 페르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몸이 창에 찔려 순교한 사도 토마스의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목수용 직각자와 창으로 형상화했다. 동인도에서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건축가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직각자의 손잡이는 황금색으로 자의 날은 은색이며 창자루는 황갈색, 창날은 은색이다. 토마스 사도에 관한 성화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장면과 목수의 연장을 들고 있는 모습의 작품이 많고, 사도들과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상으로는 채와 칼, 창, 목공의 굽자 등이 많다.</p>
<p>토마스</p>	
	<p>성경에서 사도 바르톨로메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도의 명단을 나열할 때뿐이다. 요한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나타니엘이 바르톨로메오와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소아시아에서부터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인도에서까지 선교활동을 했다. 포도와 재배자와 목동, 제분공, 모피상인, 피혁가공업자, 장갑제조공, 제화공의 수호성인이며 경력발작이나 신경병자의 수호성인이다.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가죽을 벗기는 칼 세 자루가 그려진 형상이다. 산 채로 피부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승을 그리는 문장으로 칼의 손잡이 부분은 황금색이고, 날은 은색으로 처리돼 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에는 벗겨질 피부를 드러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초기의 성화에는 책의 두루마리를 든 모습이었으나 12세기 무렵 ‘히르사우 순교도’에는 밧줄에 묶인 사도의 피부를 한 젊은이가 벗기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13세기 이후에는 작은 칼과 벗겨진 가죽을 손에 든 모습으로 정착됐고, 이러한 그림은 독일 켈른 대성당에 남아있다.</p>
<p>바르톨로메오</p>	
	<p>‘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마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의 행적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뒤의 활동은 모두 전승에 의한 것이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선교했으나 이란 동북부와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등 다른 지방에서 선교하게 됐을 때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모국어로 써놓은 것이 ‘마태오복음서’이다. 전승과 전설에 따르면 마태오는 순종과 용기의 인물이었으며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이겨낸 인내의 인물이었다.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그려진 은색 돈주머니 3개가 역삼각형 형태로 그려져 있다. 돈주머니는 성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 직업인 세리를 나타낸다.</p>
<p>마태오</p>	

	<p>주님의 형제라 불렸는데, 이는 야고보가 예수님과 얼굴모양이 아주 닮아서 많은 이들이 그를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체포될 때 예수님으로 오해하지 않게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으로 신호를 삼았다는 성 이냐시오의 편지 증언도 있다. 술이나 육식을 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으며,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던 야고보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양쪽 무릎이 발뒤꿈치와 같았다고 전해진다. 소야고보는 특히 사도들 가운데에서 미사를 드린 최초의 인물로 전해진다. 율법에 따라 금욕과 성덕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린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의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그려진 톱의 형태이며, 톱과 손잡이는 황금색, 날은 은색으로 되어 있다. 이 상징은 성인이 유다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아래로 던져지고, 돌에 맞고, 톱에 몸이 잘려 순교했다는 전승과 관련된다.</p>
<p>야고보(小)</p>	
	<p>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사이들로 구성된 열혈당원이었던 시몬은 열두 사도의 명단에서는 언제나 끝에 나열돼 있다. 시몬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축복 받지 못한 자들을 늘 동정하였기 때문에 가슴에 슬픔을 안고 산 사도였다. 어떤 전승에서는 예루살렘의 제2대 주교 시몬과 동일시 하고 있기도 한다. 전설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체포되어 톱으로 육신이 동강 나는 형벌을 당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동방 전승은 에돏산에서 선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그려진 황금색 책과 은색 물고기이다. 사도 타대오와 함께 순례여행을 다닌 시몬은 복음서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지는데, 시몬의 문장은 이 같은 전승을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성경 위의 물고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을 전한 것을 나타낸다.</p>
<p>시몬</p>	
	<p>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그려진 황금색 배와 은색 돛대이다. ‘타대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다는 배를 타고 수많은 항구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전승이 문장에 반영되었고 여기에 돛단배는 교회를 의미한다. 혹은 타대오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상징화했다는 주장도 있다. 교회 미술 작품에서는 대개 시몬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성인의 표상은 사도의 상징인 책 또는 곤봉이다.</p>
<p>타대오</p>	
	<p>배반자 이스카리옷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힌 마티아는 교회에서 ‘검손의 인물’로 꼽힌다. 전승에 따르면 마티아는 수덕생활에만 전념했으며 유다지방을 설교하러 다닐 때 시각장애인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병을 고쳐주며 악령을 쫓아내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날은 은색이고 자루는 황갈색인 전투용 도끼와 흰색이 펼쳐진 책으로 그려진다. 책의 글씨 ‘super mathiam’중 대문자 ‘M’은 붉은색,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쓰여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의 한 사람인 마티아 사도는 유다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고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진다.</p>
<p>마티아</p>	